

##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관한 신학윤리적 이해\*

이상훈 (새세대고령화연구소)

### I. 들어가는 말

### II.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과 한계

1.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
2. 사회적 자본의 한계
3. 교회와 사회적 자본

### III. 공유가치창출의 개념과 특징

### IV. 공유가치창출의 신학윤리적 이해

1. 선교적 교회
2.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
3. 언약 윤리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0.05>

\* 본 논문은 2015년 10월 13일 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 ABSTRACT •

---

## A Theological Ethical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Sang Hoon Lee(New Generation Institute of Population Aging)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challenges that Korean society faces today would be what values and how they should be pursued. In other words, it is much needed to identify, introduce, create, and implement shared values, considering that Korean society grows more divided, socially, economically, and ideologically. Firs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notion of social capital that is deemed to help to restore and establish trust in Korean society. Then we will explore the limitation of social capital and as a way to deal with it come up with the concept of creating shared value(CSV). This will be followed by the discussion about a theological ethical relevance to the concept of creating shared value. The discussion about a theological ethical relevance can show whether or not there will be a possibility that it can increase the applicability of CSV and theological ethic can contribute to this matte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that theological ethic can contribute, this paper attempts to reinterpret the theological ethical concepts such as missional church, the image of God, and covenant.

**Key words:** Social Capital, CSV(creating shared value), Trust, Society, Missional Church, Covenant, *Imago Dei*

---

##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일반화된 신뢰 수준은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는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신뢰도를 반영하는 사회자본 지수는 OECD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남북과 남남 갈등, 계급·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노사갈등에 다 묶은 이념 논쟁, 경제적 양극화, 종교적 배타주의, 권력에 의한 ‘갑의 횡포’,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 등은 우리가 풀어야 할 현안들이다. 이러한 현안이 부각되는 사회는 ‘경쟁’, ‘효율성’, ‘이익’의 논리가 팽배하기에 사람들은 불안, 스트레스, 의심, ‘분노’ 등의 소모적 증상들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학자 김호기 교수는 현 상황을 ‘욕망의 사회’로 간주하고 분열과 무한 경쟁, 무절제한 경제논리, 이기적 개인주의로 내모는 우리의 현실은 “인간성의 부식”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횡행하는 사회를 낳는다고 말한다.<sup>2)</sup> 그는 지금의 ‘위기’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공동체로 근본적 재구성이 절실함을 뜻하고 그 지향점은 통합과 협력이 추구되는 “살림의 사회”여야 한다고 진단한다.<sup>3)</sup> 그가 말하는 ‘살림의 사회’는 구체적으로 “갈라진 사회구조를 통합하는 ‘한 국민’ 정치... 국가-시민사회 간의 경쟁적 협력을 강화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연대적 개인주의”를 가리킨다.<sup>4)</sup> 위의 ‘살림의 사회’에서 모색되

---

1) 오준범·홍준표, “우리나라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6-41호, 현대경제연구원, 2016.10; 박병률, “곤두박질치는 한국 사회 신뢰도”, 『주간경향』 1201호, 2016.11.15; 한준 외,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8. 1

2) “욕망의 사회’에서 ‘살림의 사회’로”, 『경향신문』, 2014년 5월 12일자.

3) 위의 글.

4) 위의 글.

는 통합과 협력의 원칙은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요구되는 가치이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개인 상호간에 대한 배려와 신뢰 및 공존에 대한 깊은 인식이 뒤따라야 한다.

『나는 시민인가』에서 경쟁, 불신, 격차, 세습, 격돌 등의 단어로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 위기’의 근원을 ‘공공성의 부재’에 있다는 송호근 교수의 진단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sup>5)</sup>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출세 경쟁”이 우선되고 거세지는 동안 “공존과 공익” 및 “타인에의 배려”에 대한 인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sup>6)</sup> 이로 인한 ‘공유 가치’의 부재와 감소는 불신 사회를 낳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쉽거나 일어날 경우 쉽게 해소되기보다는 더욱 커질 소지가 많은 사회적 조건을 만들었다.<sup>7)</sup> 가령, ‘격차사회’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업종별, 기업규모별 격차 및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의 심화는 우울증과 자살율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소모적인 갈등과 불안정을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격차사회’가 ‘균형사회’로 바뀌기 위한 조건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사회개혁’에서 갖춰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회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감 영역’이 확장되며 공공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sup>8)</sup> 타자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며 공익을 강조하는 문화와 의식이 근간이 되는 시민사회가 성숙해 갈 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듯 이웃과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자제와 양보”를 실천하는 시민과 공공성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윤리가 실행가능해지기 위해 전제되어야 한다.<sup>9)</sup>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공익 지향적 시민정신

5) 송호근, 『나는 시민인가』(서울: 문학동네, 2015).

6) 위의 책, 338.

7) 위의 책, 140.

8) 위의 책, 168-169.

과 공동체와 공익을 존중하는 시민의 공공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상황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신뢰사회 회복 노력에 타당하게 요구되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할 때 지금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는 무슨 가치를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전체가 참여하고 모두가 고려되는 공유된 가치의 규명과 제안 및 창출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도로 본 논문은 신뢰의 회복에 요구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우선 고찰할 것이다. 그런 뒤 사회적 자본의 기여도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한계에 관해 살펴보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 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제시된 '공유가치창출' 개념이 갖는 신학윤리적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신학윤리적 관련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공유가치창출 개념의 적용가능성 제고와 이를 위한 신학윤리적 기여 가능성이 타진될 것이다. 신학윤리적 기여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공동체와 관계윤리의 원칙을 제공하는 신학윤리적 개념의 재해석을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하나님의 형상, 언약 사상을 중심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 II.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과 한계

### 1.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그의 『트러스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공동체에서 결속”을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을 높여준 것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중요한 영향 중 하나라는 막스 베버의 분석을 인

---

9) 위의 책, 373-376. 그에게 있어 공공성은 두 축, 즉 '자제와 양보', '공익에의 긴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한다.<sup>10)</sup> 후쿠야마는 다양한 법과 경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번영과 사회복지”의 실현은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데에 “특정한 윤리 규범”이 더해져야 한다고 밝힌다. 오늘날 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확보는 “법률, 계약, 경제적 합리성”과 더불어 “호혜성, 도덕률, 공동체에 대한 의무, 신뢰”가 요구된다는 뜻이며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계약(contract)에 신뢰가 더해져야 하고<sup>11)</sup> 사회발전에 있어 상호 신뢰에 바탕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공동체 확립에 요구되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외부적인 원칙과 규제”가 아니라 모든 성원이 소유하고 상호 실천하는 “내면화된 윤리적 관습”과 “도덕적 의무감”이다.<sup>12)</sup>

신뢰의 의미는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유사하게 규정될 수 있다.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뜻한다.<sup>13)</sup> 이러한 이해에서의 신뢰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단체와 조직 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sup>14)</sup>의 존재 여부에 중요하게 의존한다. 신뢰의 효과는 분명하다. 사람들이 “공통의 윤리적 규범”에 따르기 때문에 일이나 프로젝트의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대로 인해 “조직적인 기술혁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5)</sup>

10) Francis Fukuyama, *Trust*, 구승희 역, 『트러스트』(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77. 후쿠야마는 베버의 이 주장이 그의 잘 알려지지 않은 논문 「프로테스탄티즘의 분파들과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Sect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힌다.

11) 위의 책, 206.

12) 위의 책, 27.

13) 위의 책, 49.

14) 위의 책, 28.

15) 위의 책, 52.

후쿠야마는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자발적 사회성”(spontaneous sociability)이 갖는 함의에 관해 강조한다. 이 사회적 자본의 요소는 “새로운” 그룹 안에서도 긴밀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조직의 환경에서도 번창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위의 측면은 강제성에 맞춰진 타율적 비자발성의 발휘보다 자발적으로 조성된 환경에서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결속체”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sup>16)</sup> 이러한 역량은 비자발성이 주도하는 계약(contract)보다 “공적 가치”를 지향하기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마음의 습관과 이에 기초한 공동체적 에토스가 요구된다.<sup>17)</sup>

상기의 가치관과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시각은 특정한 인간이해와 관련된다. 인간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장처럼 그들의 “경제적 행위가 합리적 유용성의 극대화로 환원”되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18)</sup> 신고전파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이면서도 이기적인” 개인으로 간주하고 본질적으로 공동선보다 더 자신의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sup>19)</sup> 그러나 유용성을 “합리적으로” 극대화하는 존재<sup>20)</sup>라고 인식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방식으로 설명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행위와 본성에서 나타나기도 한다.<sup>21)</sup>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은 인간에 대한 ‘다른’ 이해에 기초한다. 많은 이들이 주장하듯 인간이란 본성상 “이기적”이며 합리적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이웃에 대해

---

16) 위의 책, 218.

17) 위의 책, 51.

18) 위의 책, 38.

19) 위의 책, 39.

20) 위의 책, 40, 59.

21) 다음을 보라. Frans de Waal, *The Age of Empathy*, 최재천·안재하 역, 『공감의 시대』; Matt Ridley, *The Origins of Virtue*, 신좌섭 역, 『이타적 유전자』(서울: 사이언스북스, 2001); 최정규, 『이타적 인간의 출현』(서울: 뿌리와 이파리, 2009); 김학진,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서울: 갈매나무, 2017).

“의무감”을 느끼는 “도덕적” 부분도 엄연히 발견된다는 점이다.<sup>22)</sup>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에게 이타적인 면이 분명히 나타나고 협업이나, 자신보다 더 큰 개념의 공동체를 우선하는 사회적 성향 또한 발견된다.

물론 반대로 신뢰가 낮은(low-trust) 사회에서는 “형식화된” 법규와 규칙 아래에서만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규칙과 법규는 종종 교섭 성사와 상대의 동의를 위해 “강압적인 수단”이 필요하며 “갈등”을 해결하는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다.<sup>23)</sup> 신뢰의 부재로 인한 법적 장치는 “업추진비”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고(高) 신뢰(high-trust) 사회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 2. 사회적 자본의 한계

그런데 로버트 퍼트남(Robert D. Putnam)은 사회적 자본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의도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24)</sup> 특정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은 본질적으로 폐쇄성과 배타성을 내포하고 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 결속이 강한 공동체들이 외부와의 연대감은 매우 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25)</sup> 예를 들어 강한 가족주의적 사회는 가족 내부적으로는 결속이 공고하고 매우 공동체적이지만, 다른 가족들과의 ‘외부적’ 관계에서는 낮은 신뢰도와 상호 의무 수준을 보인다.<sup>26)</sup> 또한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경우 “계급적 결속력”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실제로 양측 사이의 분열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sup>27)</sup>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에

22) Fukuyama, 『트러스트』, 72.

23) 위의 책, 52.

24)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정승현 역, 『나홀로 볼링』(서울: 페이퍼로드, 2009), 24.

25) Fukuyama, 『트러스트』, 211.

26) 위의 책, 217.

27) 위의 책, 217.

따라 사회적 자본은 보편적 신뢰를 위한 순기능과는 반대로 집단화된 ‘개인주의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한 “사회 결속력”으로 보이나 “분산화와 대립” 및 “사회계층 형성”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sup>28)</sup> 이처럼 결속력 혹은 사회적 자본이 모두의 유대(紐帶)와 사회성을 지향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을 때 전체 사회 자본을 저해 내지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버트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결속형(bonding)과 연계형(bridging)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대체로 “네트워크의 배타적 정체성과 동질성을 강화”하기에 “내부 지향적” 성격을 보이는 반면, 후자는 속성상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 간의 “정체성과 호혜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므로 “외부 지향적”이다.<sup>29)</sup> 가령,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따라 서로 “같은” 유형의 사람들 간에 형성되어 하나의 “사회학적 접착제”로 기능한다.<sup>30)</sup> 그러나 연계형은 “사회학적 윤택유” 같은 역할을 하여 더 많은 이들이 “폐쇄성”에서 벗어나 상호 “호혜성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 현대 사회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간주된다.<sup>31)</sup> 따라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역동성은 배타성에 안주한 채 폐쇄적으로 머무는 경향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공동체와 관계망의 확장을 통해 모두를 위한 보편적 사회 자본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 다른 사회적 자본의 한계는 “양극화” 현상이 자발적 결사체의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발적 결사체는 사회적 자본이 이미 풍부하거나 잘 갖춰진 집단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일정한

---

28) 위의 책, 217.

29)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정승현 역, 『나홀로 볼링』(서울: 페이퍼로드, 2009), 24-26, 702.

30) 위의 책, 27, 702.

31) 위의 책, 27, 703.

교육을 받고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로 이루어졌거나 이들이 주축이 된 결사체가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 결과 기존의 “계급 편향성”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으며 그에 비례해 상충하는 견해들이 타협될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sup>32)</sup>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제시가 ‘공유가치창출’의 필요성 혹은 양자 간의 발전적 연결가능성을 암시하는 후쿠야마에게서 시도될 수 있다. 즉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동일시하거나 공동체의 웰빙을 우선시하도록 한다면, 그들은 사회적 자본의 한계가 극복되도록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낼 것이다.<sup>33)</sup> 따라서 후쿠야마가 밝힌 대로 결속력은 공동체가 얼마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sup>34)</sup> 신뢰의 사회적 자본은 이러한 가치의 공유로부터 생겨나고 확충되며, 여기서 형성되는 신뢰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목적이 비영리적일수록 멤버들은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영리적 목적을 지닌 조직의 고용자들이라도 그들 자신보다 “훨씬 큰 어떤 것”에 속하였다고 인식하게 될 때 맡은 일을 수행하는 동기가 더 많이 부여된다.<sup>35)</sup>

따라서 필자는 “집단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이루는 “사회적 규범”과 그것을 “집행하는 네트워크”<sup>36)</sup>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사회적 자본의 형성만을 추구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공유가치창출’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 모든 성원들이 협력하여

32) 위의 책, 708.

33) Fukuyama, 『트러스트』, 214.

34) 위의 책, 29.

35) 위의 책, 214-215. 이러한 후쿠야마의 이해는 공동의 가치가 미치는 영향력과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가능성 및 필요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36) Putnam, 『나홀로 불링』, 475.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와 그 핵심적인 요소인 “상호 신뢰, 사회적 연계망, 호혜성의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sup>37)</sup>는 본질적으로 ‘공유 가치창출’을 지향하며 그 기초를 제공한다고 보기에 후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 3. 교회와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지속에 종교가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이해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sup>38)</sup>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교회의 기여와 역할에 관해 연구하였고 교회 활동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에 관해 전자가 “시민 활동에 갖추어야 할 기술, 시민적 규범, 지역 공동체의 관심사, 시민 충원(civic recruitment)”을 위해 “중요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sup>39)</sup> 따라서 “종교적으로 적극적인” 개인들은 ‘세상의’ 다양한 단체와 조직에 참여하고, 정치적 영역에 관심을 가지며, “일상적인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다 깊이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sup>40)</sup> 퍼트남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히 적극적인(unusually active) 사회적 자본가”라고 평가하는 이유다.<sup>41)</sup>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사회적 자본의 감소와 한계는 신앙공동체, 즉 교회의 경우에도 발생하며 이는 신앙의 ‘사사화’(privatization)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근래 종교적 참여의 하락과 종교로부터의 이탈은 자원봉사

---

37) 위의 책, 698.

38) Fukuyama, 『트러스트』, 50.

39) Putnam, 『나홀로 불링』, 104.

40) 위의 책, 104. 또한 다음을 보라. Robert D. Putnam and Lewis Feldstein,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New York: Simon& Schustern, 2003).

41) 위의 책, 105.

나 “대의활동”의 정도가 감소하는 현상과 연동되어 일어나고 있다. 후쿠야마도 같은 맥락에서 “신뢰와 사회성”이 감소하고 있는 증거와 이유를 언급하면서 교회의 쇠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이해하였다. 후쿠야마는 다른 “중개적 사회조직”과 더불어 교회의 쇠퇴를 이웃이나 타인들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든지 “공동체 의식”을 나누지 못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42)</sup> 그런데 이와 관련 퍼트남은 성장하는 복음주의 교회에 반해 주류 교단이 “쇠퇴”함에 따라 “시민적 참여와 ‘연계형’ 사회적 자본”의 기초 역할을 하는 “종교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sup>43)</sup> 이러한 사실은 지역공동체에의 시민적 참여 감소와 신앙의 사사화로 인해 일반 공동체처럼 교회도 폐쇄적인 (신앙)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자들에게 “지역 공동체에의 시민적 참여”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복음주의 교회의 경우 신앙의 사사화 경향은 신앙생활이 도리어 사회적 자본의 감소 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sup>44)</sup>

그렇다면 쇠퇴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회복하고 재창조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본 논문은 ‘공유가치창출’(CSV) 개념을 통해 시도하고자 한다. ‘공유가치창출’의 적용과 실행 노력은 전술한 ‘사회적 자본’의 한계를 다루기 위한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실현가능성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공유가치창출의 개념과 특징

그렇다면 ‘공유가치창출(CSV)’이란 무엇이며 왜 공유가치창출인가? 처

42) Fukuyama, 『트러스트』, 29.

43) Putnam, 『나홀로 볼링』, 124-125.

44) 위의 책, 124, 126.

음에 기업은 기부나 자원봉사 등의 자선활동을 통해 사회적 니즈(needs)를 일부분 충족시킴으로 지역공동체와 연결고리를 형성해 왔다. 이어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통해 법과 윤리를 지키고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그러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문제를 근원적으로 타개하기 보다는 경제적 계층 간의 차이를 ‘제한된 정도’로 좁히는 효과만 나타나 “그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다.<sup>45)</sup>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공유가치창출’(CSV)이다. ‘공유가치창출’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기업의 경제활동과 일체화”시킴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증가시키려는 시도다.<sup>46)</sup> 따라서 ‘공유가치창출’은 전통적인 기업의 이해에 매몰돼 경제적 문제에만 집착하는 관점의 한계에서 벗어나 여러 사회적 문제나 필요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인식함으로 기업의 수익창출 활동을 통해 그것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있다.<sup>47)</sup> 이 실천적 개념은 사회 성원의 이익이 기업의 성과와 별개거나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양립 가능”하며 “공극적인 사회 발전”과 진정한 “경제적 효율성”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고 밝힌다.<sup>48)</sup>

---

45) Michael Porter et al., DBR(동아비즈니스리뷰) 위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서울: 동아일보사, 2015), 20; 전병준, “공유가치창출의 사회적 배경과 개념,” 박홍수 외, 『공유가치창출(CSV)전략』(서울: 박영사, 2014), 8. 그리고 관련된 논의를 위해 다음을 보라. 강원돈, 『지구화시대의 사회윤리』(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279-300; 신창균, 「CSR과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치 창출)」, 『CG Review』, vol.66, (2013).

46) 나종연 외, “공유가치창출(CSV) 시대의 소비자 연구 제안,” 『소비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2014년 6월), 141, 144; 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 nos. 1-2 (January-February 2011): 62-77.

47) Porter et al.,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21-22.

48) 나종연 외, “공유가치창출(CSV) 시대의 소비자 연구 제안,” 『소비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2014년 6월): 142; 나눔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에 관해서는 산업

따라서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기업과 사회는 무관한 상태로 머물지 않고 더불어 성장하는 길을 찾음으로 상호 의존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sup>49)</sup>

사실, 지역 사회의 문제는 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기업의 필요와 사회적 니즈는 바람직하게 분리될 수 없다. 양질의 기술 인력이 공급될 수 없으면 개인과 사회뿐 아니라 기업에도 어려움이 초래된다. 지역의 구직자에게 실업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50)</sup> 지금 시장은 기업과 사회 혹은 고객의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사회는 시장에서 점차 서로 의존적이 됨에 따라 기업의 이야기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기업의 경쟁력에 무슨 작용을 하는 지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사고”가 공유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구성한다.<sup>51)</sup>

위에서 살펴본 ‘공유가치창출’의 특징적 요소를 고려하고 교회가 사회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면 교회가 기업이나 타 사회 조직 혹은 공동체들과 달리 ‘공유가치창출’을 실천하고 적용하는데 예외가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교회가 사회의 여러 니즈와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노력을 ‘공유가치창출’로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교회의 참여와 역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사회와의 관계에서 실행되는 ‘공유가치창출’은 이웃 사랑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번성’(flourishing)에<sup>52)</sup> 기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의 역할 상 적절한

정책연구원, 「공유가치창출(가칭) 중점추진방안 연구」, 2011. 11: 160-162를 보라.

49) 유창조, “사회공헌활동의 진화과정”, 『공유가치창출(CSV)전략』, 75.

50) Porter et al., 위의 책, 22.

51) ‘기업 공유가치창출은 시대적 소명...이윤 창출 넘어 사회가치 창출로’, 『조선일보』, 2014년 11월 27일자.

52)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운 역, 『광장에 선 기독교』(서울: IVP, 2014), 제4장 “인간의 번영”을 보라.

사역 목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유가치창출’의 실행에 대한 신학과 교회의 적합성(relevance) 및 양자 간의 친화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공유가치창출’을 위해 선정된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시행과 실천 과정에서 발견되는 가치와 원칙은 무엇인가?<sup>53)</sup>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다. 사회적 이타주의 성향을 지닌 인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세부적으로 의사소통, 진정성,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결속(공동체와의), 공정성(공정한 대우와 혜택)과 도덕성(윤리성과 투명성) 및 장기적 호혜성, 그리고 금전적 인센티브와 물질적인 보상 이상의 내적 의욕 유발과 다양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또한 ‘공유가치창출’을 실행하려는 조직이나 단체와 지역 사회와의 일체성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사회의 공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기능과 역할 수행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유도함에 따른 바람직한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외에, 사회적 가치의 향상을 지향함으로써 기존의 경영방식에 변화를 줄뿐 아니라 이를 위해 기업의 내부 조직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려 한다. 그럼에도 기능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각 참여 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각 참여 단체나 조직들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장려하는 사회문화가 동반된다.

‘공유가치창출’과 교회와 신학의 관련성 및 양자 간의 친화력, 즉 후자의 ‘공유가치창출’에의 참여 여부와 가능성은 위에 열거한 가치와 원칙을 교회와 신학이 산출해 내고 본질적으로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향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 섹션에

---

53) 박홍수 외, 『공유가치창출(CSV)전략』.

서 사회적 자본과 ‘공유가치창출’에 대해 친화력을 지닌다고 보는 신학적 개념을 설명하고 해석함으로써 위의 ‘공유가치창출’의 가치와 원칙이 신학적이고 교회됨과 관련성이 많기에 교회와 신학이 ‘공유가치창출’의 발전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기여할 여지와 가능성이 있음을 서술하고자 한다.

#### IV. 공유가치창출의 신학윤리적 이해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과 루이스 펠드스타인(Lewis Feldstein)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동의 삶을 나누기 위해 사회적 차이의 경계를 넘어 그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 기관”에 대한 연구에서 교회를 전형적인 예로 거론하였다.<sup>54)</sup> 퍼트넘과 펠드스타인의 이러한 분석에 대한 선교 신학자 크레이크 밴 겔더(Craig Van Gelder)와 드와이트 샐리리(Dwight J. Zscheile)의 평가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이를 위한 ‘공유가치창출’의 적용에 교회와 신학이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55)</sup> 이는 교회와 신학이 ‘공유가치창출’의 실행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성과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신학적 개념과 교회론이 이러한 기능을 위한 기초로 작용할 수 있을까? 또한 이들의 어떤 점이 공유가치창출의 본질과 연결되며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동기와 근거를 제공하는 신학적 노력의 가능성을 내포하는가? 관련된 신학윤리적 개념들을 분석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54)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서울: CLC, 2015), 270-271; Robert D. Putnam and Lewis Feldstein,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New York: Simon & Schuster, 2003).

55)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270-271.

## 1. 선교적 교회

우선,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신학적 필요성과 정당화의 가능성은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란 개념을 통해서 발견된다. ‘선교적 교회’는 ‘타락과 불완전의 세상에서 대안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지향하고 경제, 문화, 정치 등의 공적 영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선교적 교회는 “모든 인간의 화해와 모든 피조물의 치유”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보이고 그 증인이 될 공동체의 “육성”을 성령께서 이끄심에 따라 허락하시는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이미 시작 되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회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포함한다.<sup>56)</sup> 이러한 선교적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현실과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이해에 더해 “모든 생명체의 상호관계성”을 확립하려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한 곳에서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 노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sup>57)</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교적 교회는 “느낌, 경청, 행동”을 통해 타자들에 “깊이 공감”하는 “열정적인” 교회이고 선교는 타자들에 대하여 “연민어린 사랑”을 베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해된다.<sup>58)</sup> 이를 위해 교회는 “이웃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 관계는 “통제와 거리두기”에서 나타나는 이웃과 “단지” 관계 맺는 자선을 말하지 않는다.<sup>59)</sup>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에의 동참을 강조하는 선교적 교회는 타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의 삶에 “참여”할 것을 주문한다.<sup>60)</sup> 교회의 존재와

56) 위의 책, 106-107; Darrell L. Guder, *Missional Church*, 정승현 역, 『선교적 교회』(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3), 169-270.

57)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104-108; Darrell L. Guder, 『선교적 교회』, 271-319.

58)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220.

59) 위의 책, 220.

60) 위의 책, 220-221.

활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상관없이”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현실에 전적으로 들어가” 삶을 공유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한다.<sup>61)</sup>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지역 사회과의 공유를 추구하고 공유가치를 중요시 하여 생활과 제도에 공유하는 부분이 있게 하려는 점에서 ‘공유가치창출’을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면을 보인다. 이때 교회는 지역 공동체와 공유의 부분과 영역을 확장함으로 상호관계에서 양자가 정체성에서 구별되나 무관하게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간다. 한 편이 다른 편으로 편입되거나 획일성을 향한 하나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의 참된 ‘번성’을 위한 하나를 염원하여 무관심과 분리를 벗어나는 유형의 공동체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성육신의 의미 역시 유사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성서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성을 짊어 지신” 것처럼 교회와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역 공동체의 “삶과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이웃의 짐을 대신” 져야한다.<sup>62)</sup>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자유”함으로<sup>63)</sup> 그들의 삶에 참여적이고 그들과 공유하는 가치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가치를 공유하려는 의지와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시도를 통해 실현되는 “교회됨”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삶의 모든 형태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및 화해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가리킨다.<sup>64)</sup>

절대 주체의 단일신론적 하나님 이해에 따라 세계가 하나님의 “보존과 구속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대신, 몰트만이 주장하듯이 창조주께서 성

61) 위의 책, 220-221.

62) 위의 책, 219.

63) 위의 책, 219.

64) 위의 책, 266.

령을 통해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관점은 피조세계와 하나님이 “복잡한 그물망”처럼 “상호적이고 다면적인 관계”로 얽여 있다고 이해한다.<sup>65)</sup>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에 “관계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과 현존을 이른다.<sup>66)</sup> 그리고 우주 만물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활동과 현존” 그리고 성령을 통해 계속되는 것은 “세속적” 공간과 인간과 문화 “안에서” 또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활동 지평”이 요구됨을 가리킨다.<sup>67)</sup>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소유권”이 교회에만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구원은 언제나 “세상 밖에서(out of)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in), 세상에 속해서(of), 세상을 위해서(for)” 일어나고 진행된다.<sup>68)</sup> 모든 인간은 “창조하는 피조물로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성령은 “모든 수준의 문제와 삶에 미치는 창조성의 원리”<sup>69)</sup>이다. 이러한 선교 신학적 진술은 사회의 다양한 필요와 당면한 모든 이슈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공유가치창출’에 교회와 신학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의 윤리적 실천이 가능하고 또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과 친화력이 있는 신학윤리적 시각은 “밖으로 나가는” 선교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의해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대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우려는 사고에서도 발견된다.<sup>70)</sup> 이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는 “동반(companionship)의 정신”을 실천하여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대

---

65) Jurgen Moltmann, *God in Creation: A New Theology of Creation and the Spirit of God*(Minneapolis: Fortress, 1993), 14, 위의 책, 213에서 재인용.

66)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214.

67) 위의 책, 215.

68) 위의 책, 215-216.

69) 위의 책, 215; Jürgen Moltmann, *God in Creation*, 100, 위의 책, 215에서 재인용.

70)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208.

신 이웃과 “공감”하며 “함께” 견도록 추천한다. 위의 원리는 신자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sup>71)</sup> 이러한 시각은 교회의 회중에 대한 이해에서도 확인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광범위하게 세상과 사회에서도 일어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돕는 참여자”로서의 자기이해 하에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sup>72)</sup> 회중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이들을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관심과 실행에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히, 이들 하나님의 동반자들은 “공익”의 확충노력에 자원하고 기여함에 있어 요구되는 역량들을 키우며 지역의 빈번한 이슈들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sup>73)</sup>

## 2.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

이러한 선교적 교회론은 관계적 삼위일체론에 따른 인간이해에서도 나타난다. 관계적 삼위일체론에서 확인되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 부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관계 속에 있는 인간 삶에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면서 “사회적 존재”가 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이다.<sup>74)</sup> 그리고 “상호성, 개방성, 다름, 사랑의 특성을 지닌 역동적 공동체”를 분명히 시사하는 관계적 삼위일체신학은 인간의 정체성이 “신적 공동체의 삶과 다른 인간들의 삶에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힌다.<sup>75)</sup>

71) 위의 책, 267-268.

72) 위의 책, 270.

73) 위의 책, 270.

74)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신옥수·백충현 역, 『기독교조직신학개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251.

같은 맥락에서 스탠리 그렌츠(Stanley Grenz)는 하나님의 형상이 “개인 그 자체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관계” 속에 있다고 설명한다.<sup>76)</sup> 따라서 “화해”되고 “하나”됨으로 상호 의존과 지원이 이루어지며 서로 교제 가운데서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낸다.<sup>77)</sup> 하나님의 본성은 성령을 통해 인간 공동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생물학적 다름”을 존중하면서 “불공정한 분열”을 극복하게 돕는다.<sup>78)</sup> 위의 신학적 주장에는 대안적 인간론이 제시된다. 그것은 이기주의적 삶의 패턴에 따른 서로 간의 단절과 개인의 원자화보다 “교제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 “사회적으로 깊이 박힌” 삶을 기꺼이 선택한다.<sup>79)</sup>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은 “역동적이고 관계적”이기에 “상호 주관적”인 동시에 “타인들의 삶을 공유하는” 것에서 찾아진다.<sup>80)</sup>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sup>81)</sup>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모든 존재의 피조란 “공존성”과 “상호 의존성”이 인간의 어떠함과 인간에게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sup>82)</sup>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인간은 하나님과 “타자들” 상호간의 관계 속 존재일 때이며 우리가 서로 도움을 베푸는 관계를 형성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사는 것이다.<sup>83)</sup> 인간은 “고독한 존재자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

75) 위의 책, 206.

76) 위의 책, 230.

77) 위의 책, 231.

78) 위의 책, 224.

79) 위의 책, 233.

80) 위의 책, 233.

81) Daniel L. Migliore, 『기독교조직신학개론』, 245.

82) 위의 책, 186-187.

83) 위의 책, 186-187, 245.

에<sup>84)</sup> 타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보다 계속적 “상호 작용”을 통해 자유에 이르므로 하나님 형상 개념은 이웃과의 “공존”이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라고 말해준다.<sup>85)</sup>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관계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타자와의 인격적 상호작용에서 경험되는 “자기 초월적 삶”을 추구한다.<sup>86)</sup> 그러므로 몰트만은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서 인간의 책임성 주제를 읽어낸다. 몰트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삶의 관계 속에 있는 통전적 인간”으로 볼 때 그의 이해는 인간이 자신과 타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인식하는” 존재란 의미다.<sup>87)</sup> 이처럼 이웃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 이해는 우리의 주의를 타자와의 관계맺음으로 향하게 함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와 공동선에 복무하는 공유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를 요청하고 촉진한다.

이상의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 윤리에 관한 논의는 모든 구성원들과 이해 관계자들 간에 폴 레만(Paul Lehmann)이 말하는 “책임적인 상호성”의 실천을 필요로 한다. “책임적인 상호성”은 상호 간 이타적 행위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이웃과 타자에 대하여 “취약해지기”를 기꺼이 선택함으로써 계약적 조건을 넘어 언약적 포용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관계윤리를 말한다.<sup>88)</sup> 이러한 윤리적 실천은 자신(그리고 자기 공동체)의 권리나 이익보다 이웃(그리고 다른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필요를 중시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윤리적 역동성과 실천에 대한 압력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공유가치창출을 낳게 하는 동기와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84) 위의 책, 186-7.

85) 위의 책, 250.

86) 위의 책, 245.

87) 김형민, 『하나님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서울: 북코리아, 2011), 112-113.

88) Paul Lehmann,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34-37.

단순히 “자기 충족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존재”로 머무는 데서 탈피하여 이웃이나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동의 가치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의 창출을 촉진하게 된다.<sup>89)</sup>

나아가서 “책임적인 상호관계”는 대부분의 거래와 관계에서 발견되고 실행되는 대로 타자로부터 등가물을 받으려하는 대응적 교환관계를 뛰어넘는다. “상호 책임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도적으로 취약해지기”에 기초한 관계윤리는 상대방이 누구이든 그리고 상호관계나 교환에서 그들의 조건이 어떠하든, 혹은 설정된 가치에 대한 공유의 폭이 크지 않더라도 양자 혹은 다자간 동의나 합의된 가치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sup>90)</sup> 이러한 관계윤리적 패러다임은 공유가치(창출)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며 가치가 공유될 수 있는 이슈와 문제를 더욱 증가시키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유 면적을 보다 확대시킨다. 그렇다면 책임적인 상호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학윤리적 개념에 터 하고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래서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교회와 신학의 기여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가? 필자는 등가물을 요구하는 교환관계보다 상호 배려와 책임 및 수용이 요구되는 공유가치창출의 특징과 적용을 고려할 때 언약 개념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sup>91)</sup>

89)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기독교 사회윤리』 제28집(2014), 221-222.

90) Paul Lehmann,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34-37.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222; 이상훈, 「기독교적 언약(言約)과 유교적 향약(鄉約)의 비교」,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2009): 289-316.

91)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기독교 사회윤리』 제28집(2014) 222; 이상훈, 「기독교적 언약(言約)과 유교적 향약(鄉約)의 비교」,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2009): 289-316.

### 3. 언약 윤리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공유가치 창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윤리적 개념이 요구된다. 공유가치창출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징과 적용을 고려할 때 이해(利害)를 앞세우는 계약적(contractual) 패러다임으로는 한계에 맞닥뜨릴 수 있다. 반면 언약(covenant)은 등가물을 요구하는 교환관계보다 상호 배려와 책임 및 수용의 측면으로 인해 공유가치창출의 실행 가능성과 내용의 폭과 넓이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는 공유가치창출이 언약적 틀에서 형성되고 지속되며 발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언약의 어떤 특징이 이러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계약과 언약적 관계 윤리의 무슨 내용들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공유가치창출의 개념과 특징과의 관련성 여부의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

계약은 이해(利害)에 기반하여 ‘효과’와 ‘편리’를 목적으로 ‘합의’와 ‘상호 동의’에 의한 관계의 성립을 가리킨다.<sup>92)</sup> 협상에 따라 관계가 맺어지는 계약에서 의무와 권리는 양자가 동의한 조건에 한한다. 계약 관계는 자신의 유익에 관심을 갖는 “독립된 개체”라는 인간이해를 상정하고 추진한다. 이러한 인간관은 ‘나’의 “이익”에 열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개인적” 이길 허락하므로 “보다 개인적”이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는 “고립된” 인간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는 계약적 의식과 문화가 지배하는 삶과 사회는 소외와 “형식적인 관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sup>93)</sup> 이러한 관계 패러다임과 윤리는 공동체 전체의 번성에 요구되는 ‘모험’이 부정적으로 과장되

92) 신기형, 『기독교윤리개론』(서울: 서울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170.

93) 신기형, 『기업윤리: 언약적 해석과 계약적 해석을 중심으로』(서울: 한들, 1998), 20; 신기형, 『기독교윤리개론』, 170.

거나 그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하며 복잡적이고 다원적인 오늘의 삶의 조건으로 인해 관계의 횡수와 규모를 축소시키고 더욱 빈번한 파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계약 관계가 주도하는 사회와 문화는 '신뢰'와 협력 등 '사회적 자본'의 감소 경향으로 인해 관계와 공동체의 기회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소멸적'이다.

언약은 이와 대조적으로 “요구”와 “권리” 보다 “기여”와 “책임”을 앞세우며 계약상 “명시된 조건”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도덕률과 사랑”에 따르기에 율법적 경직성이나 제한됨 없이 그것의 형식적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sup>94)</sup> 언약관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대신 “해야만 하는 것”에 주목하고 공동의 선과 가치를 도모하는 “책임적 자유”의 실천을 요청한다.<sup>95)</sup> 이러한 의미의 자유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거나 공동체의 행복을 간과하는 선택보다 배려와 나눔을 바탕으로 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에 연동되는 실천이다. 언약의 관점에서 인간은 우호적 관계 속에 존재하기에 그 윤리적 관계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언약은 소외나 배제 혹은 무관심을 전시하는 인간 존재의 왜곡을 관계 윤리적 변환을 통해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섬김과 지원 및 이해의 확대를 불러일으킨다.<sup>96)</sup> 이러한 의미에서 언약은 공동선과 공통된 가치의 실현에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참여를 최적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다.<sup>97)</sup>

94) 이상훈, 「초고령화시대 사회적 행복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32집(2015), 330; 신기형, 『기독교윤리개론』, 156; 신기형, 『기업윤리』, 19-21.

95) 신기형, 『기독교윤리개론』, 156.

96) 이상훈,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행복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329.

97) Max L. Stackhouse, “Introduction: Foundations and Purpose,” in *On Moral Business: Classical and Contemporary Resources for Ethics in Economic Life*, ed. Max L. Stackhouse et al. (Grand Rapids: Eerdmans, 1995), 31.

언약의 메커니즘은 관계와 공동체 조성에 ‘친화력’이 있는 특징으로 인해 공유가치창출의 실행에 알맞은 플랫폼을 구비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계약의 원칙은 공유와 관계 형성에 대해 비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상호간 긴장과 ‘경계’ 및 자기중심적이고 개별화된 혜택을 내포하기에 공유가치창출의 시도와 기회와 친화력이 약하며 그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띤다. 그러므로 타자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행복에 대한 기여 및 책임을 구체화하는 공동의 가치와 공유가치창출의 실현가능성 제고는 계약적 관계 문화에서 언약적 윤리 실천으로의 이행과 발전이 일어나야 한다.<sup>98)</sup>

그런데 이러한 언약적 관계윤리의 실천은 사랑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시각에 기초하고 그것을 전제한다.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실천을 향한 창조 목적’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바람직한 삶’이어야 하며 그들이 “잘 되고” 그들에게 “행복한 삶”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타자의 번성(flourishing)과 우리의 번성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번성을 위해서도 타자가 잘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sup>99)</sup>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잘살 수 있는 것도 약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바람직한 삶”을 위해 긍휼과 도움을 베풀으로써 이루어진다.<sup>100)</sup> 볼프에 따르면 “진정한 번영” 혹은 행복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잘 되어 가는 것”의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몸같이 이웃 사랑을 통해 “기본적인 필요”(basic needs)가 채워지고 “하나님과 이웃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sup>101)</sup> 이를테면 타자와의

98) 신기형, 『기독교윤리개론』, 170; 신기형, 『기업윤리』, 20.

99)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109.

100) 위의 책, 109.

관계 속에서 신뢰, 네트워크, 봉사 등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이를 위한 지역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 간의 공유가치창출의 실행이 이루어질 때이다.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타자’”를 돌보시겠다는 창조 언약에 따라 모든 인간을 “포괄적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실천에 배제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sup>102)</sup> 전체 피조물을 관심과 배려의 대상으로 품는 보편적인 언약 이해는 교회가 지역 사회와의 공유가치를 발굴하고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와 가능성을 명시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언약적 사랑”은 지역공동체와 모든 이들을 향해 “동등한 배려의 윤리”를 실천하도록 하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다는 시각을 특징으로 한다.<sup>103)</sup> 이러한 관계윤리의 기저에는 “공감하는 도덕능력”을 내포하는 “공흥”의 마음이 놓여 있다. 공흥은 공감의 능력을 포함하기에 타자의 “필요”를 발견하게 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과 연대하도록 설득하고 이끈다. 이러한 공감의 실천에 따른 언약적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참여하도록 권면한다.<sup>104)</sup> 따라서 언약에 터 한 관계윤리적 실천과 삶의 문화는 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민감하고 공통의 가치를 발견하게 이끌므로 공유가치창출의 실행을 위해 적절한 사회적 에토스의 모체(matrix)를 구성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적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공유가치창출이 보이고 실천하는 가치와 원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

101) 위의 책, 110.

102) Richard Osmer, *The Teaching Ministry of Congregations*, 장신근 역, 『교육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518-522; Max L. Stackhouse, *Globalization and Grace*, 이상훈 역, 『세계화와 은총』(서울: 선학사, 2013), 253-254.

103) 위의 책, 519.

104) 위의 책, 521.

협력', '사회적 이타주의 인간형(型)', 지역 사회와의 일체성 노력, 소통과 타인에 대한 공감, 공정성과 장기적 호혜성, 변화와 혁신의 경향성, 고유성과 차별성에 기초한 “전문성”과 “경쟁력” 촉진 문화 등이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형상, 언약 등의 신학윤리적 개념들은 ‘철저하고 급진적인’ 공동체와 관계윤리의 원칙을 제공하고 있어 사회적 자본 및 공유 가치창출의 정립과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확충과 실행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았다. 앞에서 논의된 대로 교회와 신학이 적용하고 주장하는 공동체와 관계윤리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생명체의 상호관계성”을 확립, 타자에 대한 연민어린 사랑, “공홀”한 마음으로 이웃의 “현실에 전적으로 들어가” 공동체와 삶을 공유하기, “상호주관적”이나 “자발적으로 타인들의 삶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는 피조물로”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모든 수준의 문제와 삶에 미치는 창조성의 원리”인 성령, “책임적인 상호성”을 위해 이웃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취약해지기”, “우리 자신들을 상호 위탁하는 관계 맺음” 추구, 타자에게 계약대로 등가물을 요구하는 교환관계 대신 언약적 상호 배려와 책임 및 수용, 계약상 “명시된 조건”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도덕률과 사랑에 따라 선택하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유효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언약적 사랑”의 실천 대상 등이다.

## 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지속적인 갈등양상으로 공존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교회와 신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루어 보았다. 우선 본 논문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신뢰에 대한 이해 및 정착과 회복 방안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의 쇠퇴가 우리 사회에 분명히 목격되지만 그것이 갖는 변영과 안정을 위한 기여나 필요는 널리 인정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타성과 동질성을 강화하는 결속형 사회 자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계가 없지 않음도 인정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은 ‘공유가치창출’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였다. 동시에 신뢰사회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제시된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신학윤리의 적합성과 가능한 양자 간의 친화력을 살펴보았다. 이는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신학윤리적 기여가능성을 보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공동체와 관계윤리의 원칙을 제공하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형상과, 언약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CSV의 적용가능성 제고와 이를 위한 신학윤리적 기여가능성이 존재함을 볼 수 있었다. 교회와 신학이 지역사회와의 사이에 공통의 가치를 설정하고 창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양자의 공공성 여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신뢰 회복으로 갈등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할 책임이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대안 공동체로서 서가기 위한 가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신뢰사회의 회복을 목표로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와 니즈의 대처에 참여하고 기여하기 위해 교회와 신학이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공동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적 적용을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형민. 『하나님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서울: 북코리아, 2011.
- 나종연 외. “공유가치창출(CSV) 시대의 소비자 연구 제안”. 『소비자학연구』. 제25  
제3호 (2014년 6월)
-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서울: 서광사, 1996.
- 박길성.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2집 1  
(2011년): 3-25.
- \_\_\_\_\_. 『한국사회의 갈등지형과 경향』. 『한국사회』 제9집 1호 (2008. 6): 5-29.
- 박홍수 외. 『공유가치창출(CSV)전략』. 서울: 박영사, 2014.
- 송호근. 『나는 시민인가』. 서울: 문학동네, 2015.
- 신기형. 『기독교윤리개론』. 서울: 서울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_\_\_\_\_. 『기업윤리: 언약적 해석과 계약적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들, 1998.
- 신창균, 『CSR과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치 창출)』. 『CG Review』,  
vol.66, (2013).
- 아나톨 칼레츠키. 위선주 역. 『자본주의 4.0: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  
러다임』. 서울: 컬처앤스토리, 2011.
- 이상훈. “초고령화시대 사회적 행복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32집(2015), 307-339.
- 장신근. 『공적실천신학과 세계화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  
판부, 2007.
- 정은희. “세월호 살인자는 선장 아닌 신자유주의”. 『참세상』. 2014. 4. 29.
- 조동성. 『자본주의 5.0 시대의 경제민주화』. 『전문경영인연구』 Vol.15 No.3 (2012).
- 조용훈.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교회 활성화 방안』. 『기독교사회윤리』. 제24집  
(2012): 223-246.
- Allen, Joseph L. *Love and Conflict: A Covenantal Model of Christian Ethics*.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5.
- Fukuyama, Francis / 구승희 역, 『트러스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 Guder, Darrell L./정승현 역, 『선교적 교회』.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3.

- Lehmann, Paul.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 Migliore, Daniel L./신옥수·백충현 역, 『기독교조직신학개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Osmer, Richard/ 장신근 역. 『교육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Michael Porter et al. DBR(동아비즈니스리뷰) 엮음,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서울: 동아일보사, 2015.
- Putnam, Robert D./정승현 역, 『나홀로 불링』. 서울: 페이퍼로드, 2009.
- Stackhouse, Max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 Stackhouse, Max. L./ 이상훈 역, 『글로벌시대의 공공신학: 세계화와 은총』. 서울: 북코리아, 2013.
- Van Gelder, Craig & Dwight J. Zscheile./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서울: CLC, 2015.
- Volf, Miroslav/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논문투고일: 2018년 2월 28일

심사개시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06일

---

 • 국 문 초 록 •
 

---

한국의 일반화된 신뢰 수준은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어 신뢰 회복의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는 지속적인 갈등양상의 지구촌을 반영하듯 우리 사회 역시 공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과 남남 갈등, 계급·계층·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노사갈등, 묵은 이념 논쟁, 경제적 양극화, 종교적 배타주의, 권력에 의한 이른바 ‘갑의 횡포’,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 등은 우리가 풀어가야 할 현안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뢰의 회복과 정착을 위한 ‘사회적 자본’에 대해 우선 고찰할 것이다. 그런 뒤 사회적 자본의 기여도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는 한계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본 논문은 신뢰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제시된 ‘공유가치창출’ 개념에 대한 신학윤리적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신학윤리적 관련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CSV의 적용가능성 제고와 이를 위한 신학윤리적 기여가능성이 타진될 것이다. 신학윤리적 기여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공동체와 관계윤리의 원칙을 제공하는 신학윤리적 개념들 즉,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하나님의 형상, 언약 사상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회자본, 공유가치창출, 신뢰, 사회, 선교적 교회, 언약, 하나님 형상

---